

# 1741년 作 《景賢堂賡載帖》 연구

허문행(許文行)

## I. 머리말

## II. 《경현당갱재첩》의 제작 배경

1. 영조의 『春秋』 진강
2. 경현당의 공간적 의미

## III. 《경현당갱재첩》의 내용과 가치

1. 구성과 내용
2. 자료적 가치

## IV. 맺음말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주요 논저: 「조선시대 추고경차관 제도의 운영」, 『한국문화연구』 38(2020)

조선의 제21대 국왕 英祖(재위 1724~1776)는 1737년(영조 13) 10월부터 1741년(영조 17) 6월까지 經筵에서 성리학의 핵심 경전 중 하나인 『春秋』를 進講했다. 영조는 『춘추』에 등장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을 논하였다. 또한 영조는 『춘추』를 통해 군신 간의 ‘義理’를 강조함으로써, 국왕의 정치적 권위를 높이고 정국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영조는 1741년 6월 22일 慶德宮(지금의 慶熙宮) 景賢堂에서 『춘추』 진강을 마친 것을 기념하는 宣醮을 베풀었다. 경현당은 본래 世子の 政堂이었으나, 18세기 초부터 왕실의 공식 행사를 진행하면서 국왕의 위엄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영조가 경현당에서 선온을 베푼 것은 국왕의 위엄을 바탕으로 大統을 계승할 세자의 권위를 신하들에게 분명히 알리기 위한 목적이 반영되어 있었다.

《경현당갱재첩》은 경현당 선온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한 첩으로 선온 장면을 그린 〈景賢堂錫宴圖〉·선온의 전말·영조의 御製詩와 신하들의 和答詩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이 첩은 선온에 참여한 신하들에게 賜給되었는데, 현재 국립중앙박물관과 서울역사박물관에 각각 1건씩 총 2건이 전하고 있다. 《경현당갱재첩》은 18세기 중반 경연과 賡載 양상, 국왕의 정통성 강화와 군신 간의 ‘의리’가 강조된 당시의 정치적 상황,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 思悼世子(1735~1762)를 걱정하는 영조의 모습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주제어: 경현당, 경현당갱재첩, 경희궁, 사도세자, 영조, 의리, 춘추

# 1741년 作 《景賢堂廣載帖》 연구

허문행(許文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 I. 머리말

조선시대 국왕은 국가나 왕실 차원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詩를 짓곤 했다. 행사에 참석한 신하들은 국왕의 시에 韻을 맞추어 화답하는 시를 올렸는데 이를 ‘廣載’라 한다.<sup>1</sup> 갱재는 국왕의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했지만, 시를 매개로 군신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반영된 문학 활동이었다.<sup>2</sup> 肅宗(재위 1674~1720), 英祖(재위 1724~1776), 正祖(재위 1776~1800)는 갱재를 활발하게 행했다. 특히 영조는 즉위 초반부터 갱재를 행하고 신하들에게 御製御筆이 담긴 帖을 하사하여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고양코자 하였다.<sup>3</sup>

이 글에서는 영조대 제작된 여러 갱재첩 가운데, 1741년(영조 17) 6월 영조가 『春秋』 進講을 마친 후 慶熙宮 景賢堂에서 신하들에게 宣醢를 베풀고 갱재한 일을 기록한 《景賢堂廣載帖》<sup>4</sup>에 대

1 廣은 ‘계속 잇는다’, 載는 ‘짓는다’는 뜻으로 중국 고대의 皋陶라는 인물이 舜 임금의 노래에 이어 화답하는 노래를 부른 데서 비롯하였다. “廣續, 載成也, 續帝歌以成其義也.” 『書經』, 〈虞書〉 益稷. 갱재와 유사한 용어로 廣韻, 廣進, 廣和 등이 있다.

2 이종목, 「조선시대 어제시의 창작 양상과 그 의미」, 『장서각』 19(2008), p. 173.

3 김현영, 「문안편지 한 장으로 족합니다」(역사비평사, 2022) pp. 304-305.

4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글에서 소개한 1741년 작 《경현당갱재첩》 이외에, 전국 여러 기관에도 동일 명칭의 유물이 소장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국립중앙도서관·해남윤씨 녹우당 소장본: 1748년(영조 24) 5월 영조가 永禧殿에 선대왕의 영정을 봉안한 후 갱재한 시를 수록한 첩으로 표제에 《景賢堂廣載帖》이라 쓰여 있다.

② 단국대학교 율곡 기념관 소장본: 1772년(영조 48) 10월 영조가 耆老所 당상들을 위로하기 위해 어제시를 내리고 갱재한 일을 수록한 첩으로, 표제에 《景賢堂御製廣進帖》이라 쓰여 있다.

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책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국박)과 서울역사박물관(이하 역박)에 각각 1건씩 모두 2건이 전해지고 있는데, 국박 소장본은 표제에 《경현당갱재첩》(LKH3783), 역박 소장본은 《景賢堂御製御筆和載帖》(서702,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175호)이라 적혀 있다.<sup>5</sup> 이 중 국박 소장 《경현당갱재첩》은故 이견희李健熙(1942~2020) 삼성그룹 회장의 수집품으로 2021년 유족이 국가에 기증하였는데 2022년 특별전 “어느 수집가의 초대-고故 이견희 회장 기증 1주년 기념전” (2022.4.28.~8.28.)에서 전시되었다.

1741년 작 《경현당갱재첩》은 역박 소장본을 중심으로 미술사<sup>6</sup>와 보존과학<sup>7</sup> 분야에서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첩의 제작 배경 및 의의에 대한 역사적 분석·현전하는 두 첩의 비교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현전하는 《경현당갱재첩》의 제작 배경, 내용과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선행연구와 연대기자료를 바탕으로 《경현당갱재첩》의 제작 배경을 살펴볼 것이다. 시간적 배경에 대해서는 《경현당갱재첩》의 직접적 요인이 된 영조의 『춘추』 진강에 대해 정리하고, 공간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선운이 열린 경현당의 17세기-18세기 위상 변화 과정을 통해 ‘경현당 선운’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제Ⅲ장에서는 국박과 역박 소장 《경현당갱재첩》을 비교하며 구성과 내용을 정리하고, 첩이 만들어질 당시의 정국의 동향과 정치가로서의 영조,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을 걱정하는 영조의 모습을 살펴볼 것이다.

## Ⅱ. 《경현당갱재첩》의 제작 배경

### 1. 영조의 『春秋』 진강

1741년 6월 22일 영조는 경희궁 경현당에서 신하들에게 선운을 내리고 갱재를 행했다. 이는 전날의 경연<sup>8</sup>에서 『춘추』 진강을 마쳤기에, 이를 기념하고 筵臣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선시대 국왕은 최고 통치자로서 정치, 외교, 국방 분야의 여러 업무를 총괄하는 존재였다. 국왕은 바쁜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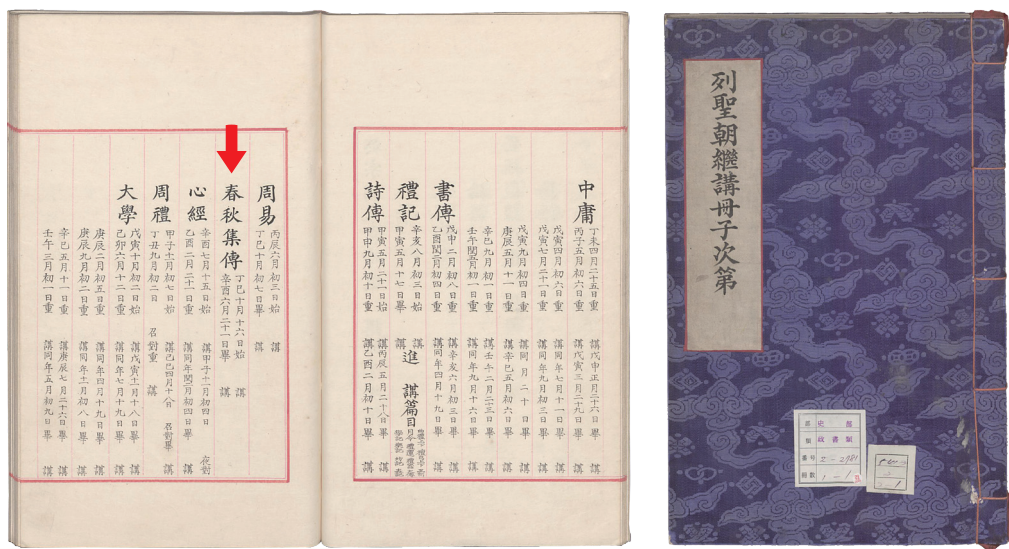
5 이 글에서는 《景賢堂廣載帖》과 《景賢堂御製御筆和載帖》을 모두 《경현당갱재첩》으로 명명하였으며, 구분이 필요한 경우 소장기관을 표기하였다.

6 호암미술관, 『김홍도와 궁중화가』(호암미술관, 1999), p. 31; 박정혜,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일지사, 2000), p. 189; \_\_\_\_\_, 『영조 대의 잔치 그림』(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pp. 114-118; 안태욱, 『궁중연향도의 탄생』(민속원, 2014), pp. 125-127; 이현서, 『英祖代 賜宴圖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20), pp. 34-46.

7 서울역사박물관, 『조선시대 기록화 채색안료』(서울역사박물관, 2009), pp. 74-81.

8 경연의 종류에는 정기적으로 시행된 朝講, 晝講, 夕講과 비정기적으로 시행된 召對와 夜對가 있었다. 소대는 조·주·석강 외에 임금과 신하가 공부하는 것을 가리키며, 야대는 밤늦게 께문이 닫힌 뒤에 열린 소대를 의미한다. 『銀臺條例』, 禮攷, 經筵.





로 인출토록 하였다.<sup>13</sup>

영조는 1737년 10월 16일의 석강부터 『춘추』를 진강하기 시작했다. 이날 영조는 『춘추집전』 서문을 읽고 “선조(숙종)께서도 이 책을 진강하였는데, 오늘 (내가 이 책을) 읽게 되었으니 감동스러운 마음이 지극하다”고 하였으며, 경연관들에게 『춘추집전』은 분량이 많으므로 향후 소대를 병행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sup>14</sup> 이후 영조는 1741년 6월 21일까지 약 170차례에 걸쳐 『춘추』를 진강했는데, 연대 기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경연 횟수와 내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sup>15</sup>

표 1. 영조의 『춘추』 진강

연도	경연의 종류			합계	진강 내역
	주강	석강	소대		
1737(영조13)	5	3	—	8	권1~2
1738(영조14)	22	18	—	40	권2~권11
1739(영조15)	22	10	—	32	권11~권18
1740(영조16)	31	24	1	56	권18~권23
1741(영조17)	18	16	—	34	권23~권37
합계(단위: 회)	98	71	1	170	

영조는 『춘추』 진강에서 신하들과 작금의 현실을 비교하며 정사를 논하였다. 진강에서 논의된 내용이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반영되기도 하였는데, 대표적으로 ‘濫刑의 금지’ 사례가 주목된다. 1738년 10월 9일 주강에서는 ‘의리는 살에 관련되어 있고, 의리가 사람과 관련되어 있다[義繫於殺, 義繫於人]’는 구절이 논의되었는데<sup>16</sup>, 이때 참찬관 徐宗玉(1688~1745)이 『춘추』의 뜻을 풀이하며 지방에서 행해지는 남형의 폐단에 대해 아뢰었다.

신이 글의 뜻으로 인해 느낀 바가 있어 감히 아뢰입니다 ... 『춘추』에서는 제멋대로 죽이는 것을 비방했습니다. 근래 방백과 수령들은 조정의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스러운 뜻을 우러러 본받지 않고, 일시적으로 화가 나는 상황이나 위엄을 세우기 위하여 형장을 과도하게 써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는 제후들이 제멋대로 죽였던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13 『承政院日記』 835책, 영조 12년(1736) 10월 7일, 丁卯, 19번째 기사.

14 “先朝, 曾講此書, 而今日亦講此, 感歎之心極矣...春秋集傳, 卷數甚多, 法講必久, 故召對欲爲並行.” 『承政院日記』 861책, 영조 13년(1737) 10월 16일, 庚子, 26번째 기사.

15 이 표는 필자가 『승정원일기』와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영조의 『춘추』 학습 기록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16 『춘추』의 魯莊公 26년(B.C. 668) 기사에는 “조나라가 그 대부를 죽였다[曹殺其大夫]”는 내용이 있다. 『胡氏傳』에는 이에 대해 “의리가 殺에 관련되어 죽음을 당한 자의 是非를 기록할 만하지 않으면 단지 그 관직만 쓰고, 의리가 사람과 관련되어 있으면 그의 성명을 함께 쓴다[義繫於殺 則止書其官...義繫於人 則兼書其名氏]”라고 하였다. 『춘추집전대전』 권11, 〈莊公〉四, 二十有六年 春.

남형은 관리들이 규정 이상으로 형벌을 가하는 행위로, 조선의 법전 『經國大典』에는 이를 막기 위한 규정<sup>17)</sup>이 있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였다. 영조는 관리들이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폐단을 질타하고, 형조로 하여금 앞으로 형벌을 신중하게 집행할 것을 엄하게 명하였다.<sup>18)</sup>

한편, 영조는 『춘추』를 통해 군신 간의 義理를 강조했다. ‘의리’는 국왕과 신하의 서로에 대한 역할을 규정한 것으로, 조선시대에는 정치적 명분과 가치 기준으로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sup>19)</sup> 1740년 5월 2일의 주장에서 송나라 昭公이 國人에게 죽임을 당한 내용이 나오자<sup>20)</sup>, 영조는 대신들에게 군신 간의 의리에 대해 하문하였다. 동지경연사 權禱(1675~1755)은 “군신 간의 大倫은 변할 수 없는 의리이며, 하루라도 없다면 하늘의 이치가 없어지고 사람의 도리가 끊어지게 된다”고 아뢰었다.<sup>21)</sup> 이에 영조는 공감하는 뜻을 보였는데, 군신 간의 절대적인 忠義를 강조함으로써 국왕 중심의 정치 질서를 수립하고자 했던 의중을 살펴볼 수 있다.<sup>22)</sup>

또한 영조는 『춘추』를 진강하며 蕩平을 필두로 노론과 소론의 시비를 조정하고, 신하들에게 黨習의 폐단을 경계할 것을 여러 차례 명하였다. 1737년 10월 21일의 주장에서는 ‘임금을 속이고 사사로움을 행하며 스스로 그 당여를 심는다[誣上行私 自植其黨]는 구절이 언급되었다. 영조는 “이 구절은 봉당의 폐해를 가리킨 것이니, 신하들이 이를 경계한다면 천하에 亂逆의 근심이 없을 것”이라며 봉당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sup>23)</sup> 1740년 9월 16일의 주장에서는 ‘권신이 있는 것만 알고, 군부가 있는 것은 알지 못한다[知有權臣, 而不知有君父]는 구절이 나오자, 영조는 이를 “당여만 있는 것만 알고, 군부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知有黨, 而不知有君父]”라고 바꾸어 당시의 정국을 비판하였다.<sup>24)</sup>

이후 1741년 3월 26일의 주장에서 시독관 鄭澤良(1706~1762)이 “『춘추』의 제후국들이 서로 영토를 빼앗은 일과 지금의 당론이 다투는 것은 모두 紀綱이 제대로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아뢰자, 영조는 대신들에게 봉당을 깨뜨리고 탕평을 행할 수 있는 도리를 논하도록 하였다.<sup>25)</sup> 이렇듯 영조는 『춘추』 진강을 통해 국가의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국왕의 권위를 높이며, 당습을 일삼는 신하들에게 깨달음을 주어 정국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17 “관리가 형벌을 남용하면 장100, 도3년에 처한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장100에 처하고 영원히 서용하지 않는다.” 『經國大典』, 刑典, 濫刑.

18 『承政院日記』 879책, 영조 14년(1738) 10월 9일, 戊子, 14번째 기사.

19 윤정, 「재위 전반기(1725~1746) 英祖의 군신관계 이해: ‘君臣分義論’의 적용과 지향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29(2007), pp. 101-102.

20 송나라 소공은 성격이 난폭하여 국민들이 미워하였는데, 魯文公 16년(B.C. 611) 11월 嫡祖母 襄夫人이 사람을 시켜 소공을 시해하였다[宋人弑其君杵臼]. 『춘추집전대전』 권18, 〈文公〉二, 十有六年 冬十一月.

21 『承政院日記』 911책, 영조 16년(1740) 5월 2일, 辛丑, 29번째 기사.

22 윤정, 위의 논문(2007), p.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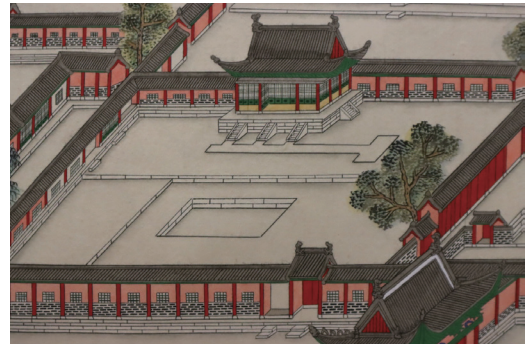
23 『承政院日記』 861책, 영조 13년(1737) 10월 21일, 乙巳, 15번째 기사.

24 『承政院日記』 921책, 영조 16년(1740) 9월 16일, 甲申, 30번째 기사.

25 『承政院日記』 929책, 영조 17년(1741) 3월 26일, 辛卯, 38번째 기사; 『英祖實錄』 권53, 同日, 6번째 기사.



도 2. 송규태, 〈西關圖〉(2014)\* 경희궁 전경, 비단에 채색, 130×400cm



도 2-1. 도 2의 세부. 경현당 부분

\*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서궐도안〉(보물)을 바탕으로 복원한 그림. 그림 속 화살표는 경현당의 위치를 표현한 것임. 필자 촬영

## 2. 경현당의 공간적 의미

영조가 궁궐의 많은 전각 중 경현당에서 신하들에게 선운을 내린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이는 숙종~영조 대 경현당의 위상이 변화한 데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경현당갱재첩》의 공간적 배경인 경현당은 慶德宮(현재의 경희궁<sup>26</sup>)에 있었던 별당으로 1620년(광해군 12) 건립되었다. 조선시대 궁궐의 연혁을 기록한 『宮闕志』에 따르면 경현당은 양덕당 남쪽에 위치하였는데, 창덕궁 時敏堂과 더불어 왕세자가 학습한 바를 강론[會講]하거나 하례를 받는 등 공식적인 행사가 열리는 正堂이었다<sup>27</sup>(도 2).

경현당은 인조 대 昭顯世子(1612~1645)가 冠禮를 치르거나 회강을 하는 등 정당의 역할을 하였지만<sup>28</sup>, 효종 대 이르러 왕세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正寢으로도 활용되었다.<sup>29</sup> 또한 임진왜란 이후 국왕은 法宮인 창덕궁에 주로 거처하였으나, 궁내에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喪事가 생기는 경우 離宮인 경덕궁으로 옮겨오곤 했는데<sup>30</sup>, 국왕의 행차가 잦아짐에 따라 경현당의 위상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현당은 숙종 대 이르러 임금이 정사를 돌보거나 왕실의 주요 행사를 개최하는 공간으로도 활용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숙종이 남긴 글이 주목된다.

26 영조는 1760년 경덕궁의 명칭이 元宗(인조의 생부 정원군)의 시호인 “敬德仁憲 靖穆莊孝”와 음이 같다는 점을 들어, ‘慶熙宮’으로 개칭하였다. 『英祖實錄』 권53, 영조 36년(1760), 2월 28일, 癸卯, 2번째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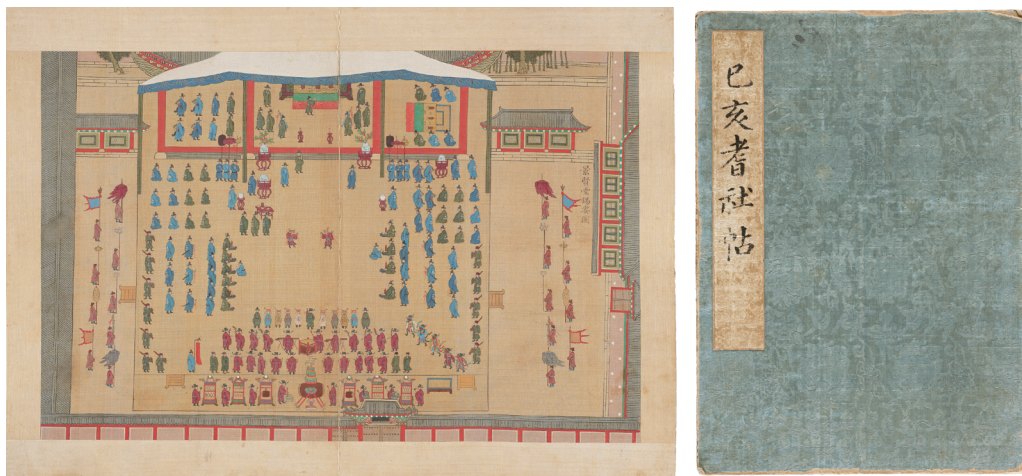
27 “景賢堂 在養德堂南. 南有一小池.”; “英廟御製 景賢堂銘竝小序曰 昌德之闕有時敏, 慶德之闕有景賢, 皆世子會講 受賀之正堂也.” 『宮闕志』 3, 慶熙宮, 景賢堂.

28 『仁祖實錄』 권8, 인조 3년(1625), 1월 21일, 庚午, 1번째 기사; 권9, 동년, 5월 16일, 癸亥, 3번째 기사.

29 『承政院日記』 137책, 효종 6년(1655) 12월 11일, 辛酉, 7번째 기사.

30 법궁은 국왕이 주로 거처하던 궁궐을, 이궁은 국가나 왕실의 필요에 따라 별도로 지은 궁궐을 가리킨다. 홍순민, 『朝鮮王朝 宮闕 經營과 “兩闕體制”의 變遷』(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pp. 1-7.





도 3. <경현당석연도>, <기해기사계첩>, 1719~1720년, 53.2×37.3cm, 국립중앙박물관(증3469), 국보, 2003년 송성문 기증

경현당은 본래 세자가 경서를 강독했던 곳으로 경덕궁의 별당 중 가장 넓고 환하다. 껍뎌를 위해 많은 신하들이 입시할 때에는 반드시 경현당으로 임하였다. 그러나 온돌이 한쪽 귀퉁이에만 있고, 어좌도 가운데 있지 않아 살펴보기 불편했다 … 호조에 명하여 온돌을 고치게 하고 南面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개의 문을 열고 여러 신하를 인견하니 가히 보기에 좋았다. 세자가 會講할 때에는 한결같이 법도에 따라 반드시 동쪽 벽에서 서쪽을 향해 앉도록 하였다.<sup>31</sup>

숙종의 글에 따르면 경현당은 세자의 정당이었지만, 경덕궁의 여러 별당 중에서 가장 넓고 많은 신하들이 모일 수 있었기에 국왕이 친림하는 행사가 이곳에서 열렸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숙종은 재위 말년 비교적 오랜 기간 경덕궁에 머물렀는데, 경현당에서 여러 차례 죄수를 심리하거나 대신들을 접견하였다.<sup>32</sup> 또한 경현당에서 왕세자(훗날의 경종)가 숙종을 대신해 정사를 돌보거나 숙종의 耄老所 입소를 기념하는 進宴이 진행됨에 따라<sup>33</sup>(도 3), 경현당은 왕세자의 공간이자 국왕의 공간으로 그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1736년(영조 12) 4월 영조의 넷째 왕자가 紅痘을 앓자 왕실은 경덕궁으로 이어하였는데, 같은 해 8월 숙종의 계비 대왕대비 김씨(인원왕후, 1687~1757)의 앓던 병이 낫자 이를 기념하기 위한 陳賀

31 “景賢堂改竈小記曰 景賢本青筵之所，而慶德別堂 此最寬敞，每當啓覆多官入侍之時，必臨此堂，而作竈倚於一邊，御座不設中央，觀瞻之未安 … 爰命地部改其竈，而作南面之制，開三門，而引諸臣甚可觀也，至於世子會講則，一邊禮制，必使東壁西向焉。”『宮闕志』3，慶熙宮，景賢堂。

32 『承政院日記』463책, 숙종 37년(1711) 10월 11일, 丙寅, 4번째 기사; 477책, 숙종 39년(1713) 4월 10일, 丁巳, 25번째 기사.

33 『肅宗實錄』권62, 숙종 44년(1718) 11월 11일, 乙酉, 1번째 기사; 권63, 숙종 45년(1719) 4월 18일, 庚申, 1번째 기사.

례가 경현당에서 거행되었다.<sup>34</sup> 또한 영조는 경현당에서 경연을 열거나 신하들을 접견하였는데<sup>35</sup>, 영조 대에도 경현당이 왕실의 주요 행사를 진행하는 공간으로 거듭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영조는 1741년 4월 25일부터 10월 16일까지 경덕궁에 머물렀는데<sup>36</sup>, 6월 22일 경현당에서 열린 선온에 세자(사도세자, 1735~1762)도 侍坐토록 하였다.<sup>37</sup> 영조가 경덕궁으로 이어한 후 세자의 정당이자 임금이 주요 행사를 열던 경현당에서 선온을 베푸는 것은, 세자의 학습 상황을 점검·격려하는 동시에 임금의 위엄을 바탕으로 후사를 이을 세자의 권위를 신하들에게 분명히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Ⅲ. 《경현당갱재첩》의 내용과 가치

#### 1. 구성과 내용

1741년 6월 22일 영조는 전날 석강에 참석했던 신하들을 경현당으로 들라는 전교를 내렸다. 영조는 신하들에게 선온을 베풀고 직접 지은 시를 내려 화답하는 시를 짓도록 했으며,<sup>38</sup> 이후 선온의 전말과 갱재시를 수록한 《경현당갱재첩》을 만들어 참석한 신하들에게 1부씩 賜給하였다. 첩은 당시 선온에 참석한 신하들의 수만큼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국박과 역박에 각각 1전씩 모두 2전이 전해지고 있다. 국박 소장본은 소장자의 정보가 남아있지 않아 누구에게 사급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역박 소장본의 경우 제2면 우측 하단에 「臣光續印」이라는 인문(도 4-3)이 있어 선온에 참석했던 尹光續(1706~1768)에게 사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두 《경현당갱재첩》은 구성과 내용이 거의 동일한데, 제1면은 선온 장면을 그린 〈경현당선온도〉, 제2-10면은 경현당 선온의 전말, 제12-18면은 영조의 어제시와 신하들의 화답시, 제19-23면은 승정원의 관리들이 영조와 세자의 덕을 칭송하며 지은 추가로 지은 시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역박 소장본의 경우 첩의 맨 뒷 부분인 24-25면에 17세기의 문신 尹元舉(1601~1672)의 만장을 비롯한 글이 실려있다.<sup>39</sup>

34 『英祖實錄』 권41, 영조 12년(1736) 4월 12일, 丙子, 1번째 기사; 『承政院日記』 831책, 영조 12년 8월 10일, 辛未, 9번째 기사.

35 『承政院日記』 933책, 영조 17년(1741) 7월 17일, 己卯 17번째 기사; 934책, 8월 7일, 己亥, 31번째 기사; 935책, 9월 6일, 戊辰, 19번째 기사.

36 영조는 1741년 4월 14일 該曹에 경덕궁으로 옮겨갈 길일을 올리도록 하였고, 4월 23일과 24일 어가가 옮겨갈 때 필요한 준비 사항을 점검하였으며, 4월 25일 卯時에 왕실 일원들과 창덕궁을 나서 경덕궁으로 이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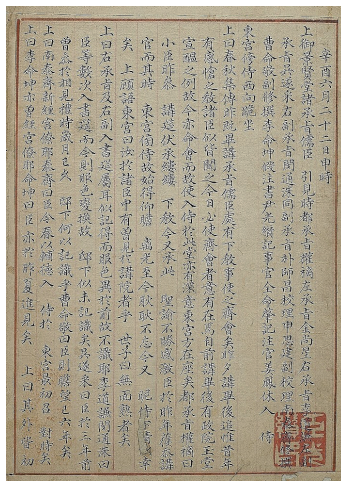
37 세자는 영조의 명으로 이따금 경연에 참석해 신하들 앞에서 공부한 바를 강하곤 했다. 『英祖實錄』 권45, 영조 13년(1737) 윤9월 22일, 丁丑, 2번째 기사; 『承政院日記』 875책, 영조 14년(1738) 7월 21일, 辛未 11번째 기사.

38 『承政院日記』 932책, 영조 17년(1741) 6월 22일, 乙卯 10번째 기사, 21번째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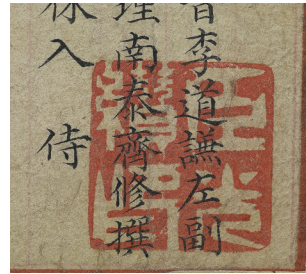
39 어떤 경위로 만장이 실렸는지는 알 수 없으나, 윤원거는 역박 소장 《경현당갱재첩》을 받은 윤광찬의 문중(파평 윤씨)



도 4-1. 《경현당어제어필경화첩》, 1741년, 서울역사박물관(서702)



도 4-2. 《경현당어제어필경화첩》 제2면



도 4-3. 《경현당어제어필경화첩》 제2면 윤광찬의 인장

#### (1) 〈경현당선온도〉

〈경현당선온도〉는 경현당의 전경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구도로, 전각 위 영조와 신하들의 모습을 정면에서 바라보는 구도로 그렸다. 경현당 위에는 국왕을 상징하는 日月五峯圖 병풍이 놓여 있으며, 그 앞으로 御座와 임금을 보필하는 관원들이 고개를 숙이고 엎드린 모습이 그려져 있다. 어좌 오른쪽에는 세자의 자리가 보이는데 『國朝五禮儀』의 규정<sup>40</sup>에 따라 동쪽 벽을 등지고 서쪽을 향하도록 배치되어 있으며, 어좌 맞은편에는 선온을 받은 신하 13인<sup>41</sup>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국박과 역박 소장본은 구도나 장면 묘사는 비슷하나 임금과 세자를 보필하는 관원, 전각의 처마 무늬 표현 등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도 5-1·5-2).

#### (2) 경현당 선온의 전말

제2-10면은 선온에서 영조와 대신들이 주고받은 대화를 기록한 것으로 당일 『승정원일기』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는데, 공적 기록을 인용한 점으로 보아 승정원에서 《경현당경재첩》의 제작을

어른이었다. 윤원거의 만장은 宋時烈(1607~1689)이 지은 것을 옮겨쓴 것으로, 송시열이 지은 글은 『宋子大全』에 수록되어 있다. 『宋子大全』 권3, 詩, 尹龍西 元舉 挽.

40 “設王世子座於東壁西向” 『國朝五禮儀』 권4, 嘉禮, 書筵會講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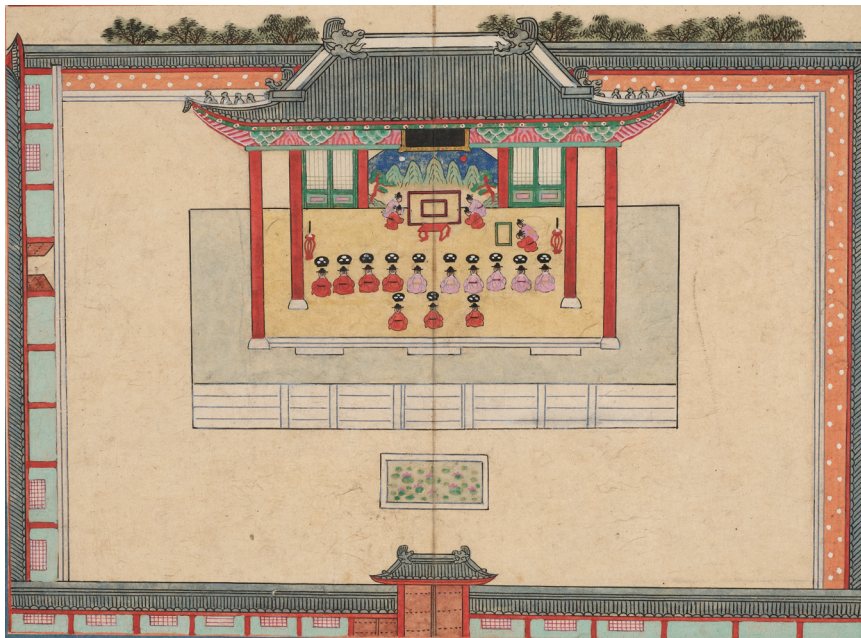
41 선온에 참여한 신하 13인(소속, 성명, 관직)

① 승정원(7인) : 권직(도승지)·김상성(좌승지)·이도겸(우승지)·오수채(좌부승지)·민통수(우부승지)·박사창(동부승지)·윤광찬(가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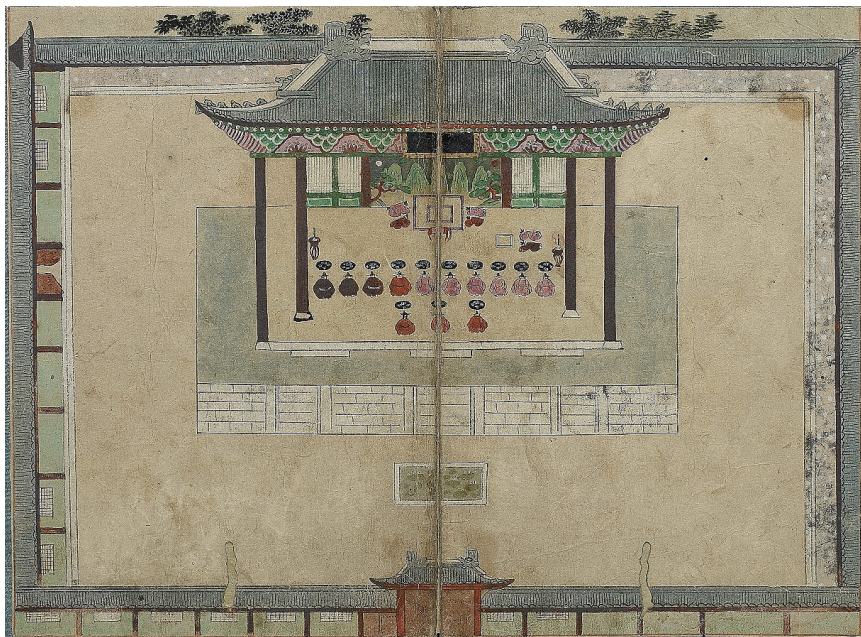
② 홍문관(4인) : 신사건(교리)·남태재(부교리)·조명교(수찬)·이명곤(부수찬)

③ 춘추관(2인) : 전명조·강봉휴(검춘추)





도 5-1. 〈경현당선운도〉, 《경현당경재첩》, 1741년, 지본채색, 32.4×42.3cm, 국립중앙박물관(LKH3783), 2021년 이건희 기증



도 5-2. 〈경현당선운도〉, 《경현당어제어필경화첩》, 1741년, 지본채색, 서울역사박물관(서702)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sup>42</sup> 선온의 전말은 세자의 학문을 점검하고, 신하들에게 술을 내려 군신 간의 의리를 돈우며, 당습의 폐단을 경계하라 분부한 일 등이 차례대로 수록되어 있다.

영조는 6월 22일 申時(오후 3시~5시) 무렵 경현당에 행차했는데<sup>43</sup>, 7세의 세자와 도승지 권적, 좌승지 金尙星(1703~1755), 우승지 李道謙(1677~?) 등 신하 13인이 먼저 입시해 있었다. 영조는 “공부를 마친 후 술을 내리는 관례에 따라 모이도록 하였는데, 깊은 의미가 있으므로 세자도 함께한 것”이라며 선온에 특별한 목적이 있음을 밝혔다.

영조는 세자에게 신하들을 소개한 다음, 세자를 곁으로 불러 공부하는 책을 읽도록 했다. 세자는 영조와 신하들 앞에서 『童蒙先習』을 강하였는데, 신하들은 “세자가 근엄하고 총명하며 나라를 도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 나라의 큰 복”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영조는 세자에게 “여기 입시한 신하들은 예로부터 임금을 섬겨왔고, 이들의 후손도 너와 함께할 것이니 잘 알아둘 것”을 당부하는 한편, 부수찬 이명곤에게 경현당 북쪽 벽에 걸린 〈御製景賢堂銘竝序〉<sup>44</sup>를 읽게 하고 아울러 세자와 신하들은 이를 듣도록 하였다.

영조는 세자의 학습을 마친 후 신하들에게 음식과 술을 내렸다. 이 자리에서 좌승지 김상성이 선왕(숙종)이 경서 강론을 마친 날과 영조가 『춘추』를 마친 날짜가 우연히 같은 ‘21일’이었다는 점을 아뢰자 영조는 “예전의 일을 회상하니 감회가 더욱 절실하다”고 화답했다. 우부승지 민통수와 몇몇 신하들은 자신들의 선친이 선왕의 은혜를 받은 일을 회상하고, 앞으로도 대를 이어 군신 간의 의리를 지킬 것임을 아뢰자, 영조는 다음과 같은 하교를 내렸다.

입시한 신하들의 조부와 부친은 모두 옛 신하이다. 옛날 기축년(1709, 숙종 35년)에는 조정이 무사하였는데, 신축년과 임인년(1721~1722, 경종1~2년) 이후로 시국이 이기는데만 힘쓰고 있다. 신하들은 자식과 손자에게 좋은 말로 타일러 시국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내가 세자를 가르치고 신하들에게 술을 내린 것은 실로 깊은 의미가 있으니 각각 그대들의 조부와 부친을 생각하라. 유생들의 黨習은 더욱 힘들고, 어릴 때부터는 가장 힘드니 … 당습의 폐단을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sup>45</sup>

42 이현서, 앞의 논문(2020), p.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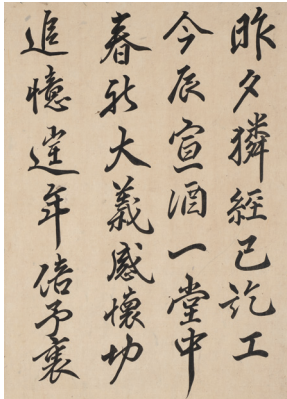
43 『승정원일기』에는 영조가 未時(오후 1~3시) 무렵 경현당에 행차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44 1736년 6월 경덕궁에 머물던 영조가 세자의 勸學을 위해 지은 글이다. 이해 4월 12일 영조의 넷째 옹주가 역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왕실은 경덕궁으로 이어하였는데, 사도세자는 왕세자로 책봉된 후 처음 경현당을 찾았다. 영조는 이를 기념하고 세자가 학문에 정진하기를 바라며 친히 글을 지어 경현당 북쪽 벽에 걸어두었다고 하나 실물은 전하지 않는다. 글의 내용은 《경현당강재첩》과 『승정원일기』에 수록되어 있다.

45 “上曰, 入侍諸臣, 乃祖乃父, 皆舊臣也 … 昔在己丑, 朝廷無事, 時象之戰, 亦不過好勝, 自辛壬以後如此矣. 入侍諸臣, 勸諭子若孫, 勿以時象, 糾結於心, 可也 … 予之教諭元良, 賜醢諸臣, 實有深意, 須各念乃祖乃父焉. 儒生之黨習, 爲尤難, 而童丱時, 尤最難焉. 自童丱而推至大官矣, 黨習之弊, 可不戒哉.”

영조는 선왕 때에는 나라가 평안했으나 辛壬獄事 후로 봉당 간의 다툼으로 시국이 혼란해졌음을 지적했다. 또한 신하들의 조부와 부친들이 선왕과 군신 간의 의리를 지켰듯, 신하 본인과 자손들도 당습의 폐단을 경계하고 임금과 세자에게 충성을 다하라는 가르침을 내렸다. 신하들은 영조와 세자에게 당습을 행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맹세하였으며, 영조는 경현당에서 오간 대화를 기록하여 선온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널리 알리도록 명하였다.

### (3) 어제시와 화답시



昨夕麟經已訖工  
今辰宣酒一堂中  
春秋大義感懷切  
追憶往年倍予衷

어제 저녁에 『춘추』<sup>46)</sup> 공부를 마치게 되어  
오늘 경현당에서 술을 하사하였네  
춘추대의에 감회가 절실하여  
지난날을 추억하니 내 마음이 갑절이나 솟구친다네

도 6. <영조의 어제시>, <경현당강재첩> 제12면, 1741년, 국립중앙박물관(LKH3783), 2021년 이권희 기증

선온이 파할 무렵 영조는 신하들에게 직접 지은 시(도 6)를 내리고, 승정원에 모여 화답하는 시를 짓도록 하였다. <경현당강재첩> 제12면에 수록된 어제시는 칠언절구로, 시의 운자는 제1구의 ‘工’·제2구의 ‘中’·제4구의 ‘衷’이다. 영조는 시를 통해 『춘추』 공부를 마치고 신하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과거를 회상하는 동시에, 군신 간의 의리를 다시 한번 천명하며 느낀 심정을 잘 나타냈다. 국박과 역박 소장본의 어제시는 필체가 거의 동일한데, 이는 영조가 내린 친필시를 寫字官이 옮겨 썼기 때문이다. 사자관은 글자의 가장자리를 돌려가며 선을 그리는 雙鉤와 쌍구를 먹으로 채워 묵서처럼 보이게 하는 填墨의 방식을 통해 영조의 필체를 그대로 구현했다.

제13-18면에는 영조의 어제시에 신하들이 화답하여 지은 시 13수가 수록되어 있다(부록 1)<sup>47)</sup>. 화답시는 영조와 세자의 덕을 칭송하거나, 선온에서 영조가 말한 군신 간의 의리를 굳게 지키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영조는 강재시를 살핀 다음 신하들의 文才에 따라 상을 내렸는데, 가장 큰 상을 받은 이는 홍문관 교리 신사건과 승정원 우승지 이도겸이었다. 신사건은 무더운 여름임에도 경연을 연 영조의 덕을 칭송하고 선왕 대로부터 이어지는 군신 간의 의리를 굳게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혀 직모로 된 말 장식[織毛馬粧]을, 이도겸은 선왕의 높은 뜻을 따르는 영조의 덕을 칭송하고 변함

46 『춘추』의 다른 이름으로 마지막 부분에 '남쪽에서 기린을 잡았다[南狩獲麟]'는 내용에서 비롯하였다. 麟史로도 불린다.

47 시의 내용은 국립중앙박물관, 위의 책(2022), p. 215의 번역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임.

없는 충성의 뜻을 보여 虎皮를 하사받았다.<sup>48</sup>

제19-23면에는 승정원과 홍문관의 신하들이 추가로 지은 칠언율시 9수가 실려있다(부록 2). 제19면 앞부분에는 “외람되이 시 한 수로 성군과 현신이 만나는 것을 표현하는데, 삼가 경연에 참여한 어진 신하들과 함께하니 금옥 같은 재주를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있어<sup>49</sup> 신하들이 자발적으로 시를 지었음을 알 수 있다. 시의 운자는 제1구의 ‘龍’· 제2구의 ‘從’· 제4구의 ‘鐘’· 제6구의 ‘宗’· 제8구의 ‘達’이다. 시의 내용은 영조가 학문을 연마하고 춘추대의에 힘쓰는데 대한 칭송, 경현당 선운에 대한 신하들의 감화에 대한 것이며, 두 첩의 신하들의 시는 사자관들의 필체로 기록되어 있다.

## 2. 자료적 가치

《경현당쟁재첩》은 18세기 중반 정국의 동향과 영조의 정치적 역량, 영조가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 사도세자를 걱정하는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 (1) 정국의 동향과 영조의 ‘군신 의리’ 강조

景宗(재위 1720~1724)의 뒤를 이어 임금인 영조는 왕위계승 정통성에 대한 시비를 없애고 老論과 少論을 국왕의 충성스러운 신하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영조의 왕위계승 정통성 문제는 노론과 소론이 대립한 ‘신임옥사’와 연관이 있다.

1721년(경종 1) 노론은 후사가 없던 경종에게 연잉군(훗날의 영조)을 왕세제로 책봉해줄 것을 청하였고, 경종은 노론의 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노론의 네 대신<sup>50</sup>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劄子를 올려 ‘왕세제가 경종을 대신해 정사를 돌볼 것[代理聽政]’까지 요구했다.<sup>51</sup> 경종은 처음에는 노론의 요구를 받아들였으나, 소론의 강력한 반대로 명을 거두었으며 대리청정을 청한 노론 신료들을 귀양 보냈다. 그러나 이듬해 노론 측 대신들이 경종을 축출하고 영조를 즉위시키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이들을 賜死하였다. 이후 노론과 소론은 신임옥사 때의 처신을 두고 임금에 대한 患逆을 가리는 ‘신임의리’를 주장했는데, 이에 대한 논쟁은 정국의 주요 화제가 되었다.<sup>52</sup>

영조는 1729년(영조 5) 신임옥사 때 사사된 네 대신 중에서 영조의 왕세제 책봉을 주장한 이진명과 조태채는 復官시키고, 경종의 축출에 연관이 있는 이이명과 김창집의 복관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48 『承政院日記』 932책, 영조 17년(1741) 6월 23일, 丙辰, 6번째 기사.

49 “猥將一律, 恭述盛遇, 要與登筵諸賢共之, 幸毋金玉其音也.”

50 金昌緝(1648~1722), 李頤命(1658~1722), 李健命(1663~1722), 趙泰采(1660~1722)을 가리킨다.

51 『景宗修正實錄』 권3, 경종 2년(1722), 4월 18일, 임신, 2번째 기사.

52 김백철, 『조선후기 영조의 탕평정치』(2010), pp. 21-25.

‘己酉處分’을 내렸다.<sup>53</sup> 이는 노·소론이 주장하는 신임의리의 주장을 절충한 것으로, 각 붕당의 蕩平 세력을 고루 등용하여 정국의 대립 상황을 완화하고자한 조치였다. 한편 영조는 1740년(영조 16) 이 이명과 김창집도 복관하고 이들이 연관된 옥사가 誣告에 따른 것이라는 ‘庚申處分’을 내렸다.<sup>54</sup> 또한 1741년 9월에는 노론 네 대신과 영조가 관련되어 있는 임인년(1722)의 獄案을 소각하고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大訓』을 공포하였는데, 이는 왕위 계승의 시비를 잠재우고 국왕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지표가 되었다.<sup>55</sup>

《경현당쟁재첩》은 1740년의 ‘경신처분’과 1741년 9월 영조의 ‘대훈’ 공포 사이에 제작되었는데, 경현당의 선온에서 영조가 신하들에게 “시국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거나 “당습의 폐해를 경계하라” 언급한 점을 통해 ‘신임의리’에 대한 노·소론의 논쟁이 마무리되어 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영조가 선온에 承政院과 弘文館 등 국왕을 가까이서 보필하는 일명 ‘儒臣’들만 입시토록 한 점도 주목된다. 선온의 명분은 『춘추』의 진강 완료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경연을 주관한 領·知經筵사도 으레 참석해야 했지만 영조는 이들을 牌招하지 않았다. 당시 영경연사는 소론의 宋寅明, 지경연사는 노론의 徐宗伋(1688~1762)과 李德壽(1673~1744)였는데, 영조는 이들이 한자리에서 만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패초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영조는 선온을 통해 붕당을 초월한 ‘군신 간의 의리’를 강조했다. 선온에 참석한 좌부승지 오수채는 소론의 영수였던 尹拯(1629~1714)의 문도였고 우부승지 閔通洙(1696~1742)는 노론의 영수 閔鎭遠(1664~1736)의 아들이었다. 영조는 이들과 술잔을 나누며 선왕(숙종) 대부터 이어져 오는 ‘군신 간의 의리’를 언급함으로써, 신하들의 국왕과 세자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고자하였다.

## (2) 영조의 사도세자 사랑

영조는 사도세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비정한 아버지로 알려져 있으나, 《경현당쟁재첩》에는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걱정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사도세자는 1735년(영조 11) 1월 21일 영조와 暎嬪 李氏(1696~1764)의 아들로 태어났다. 사도세자는 태어난 지 1년 만인 이듬해 3월 15일 왕세자에 책봉되었는데<sup>56</sup>, 이는 1728년 孝章世子(1719~1725)가 갑자기 홍서하여 대통을 이을 후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영조는 1736년 경덕궁에 머물 때 〈御製景賢堂銘〉을 지어 세자의 정당인 경현당에 걸어두고, 앞으로 세자가 공부에 열중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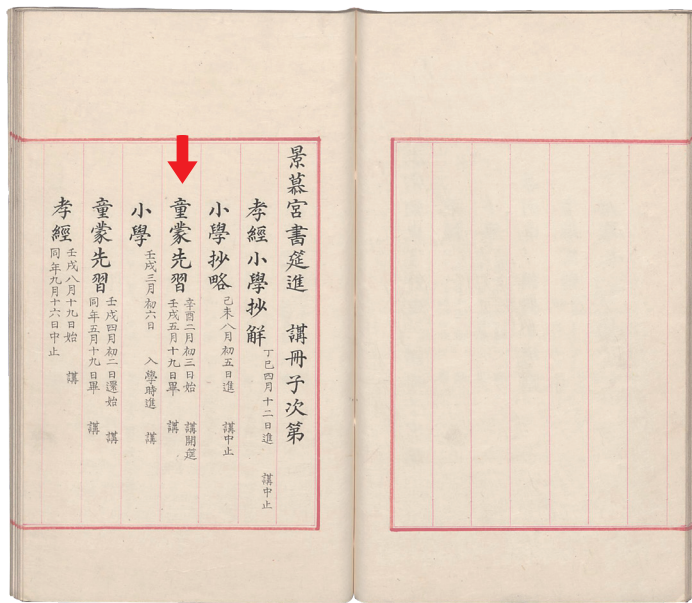
아, 경덕궁에 경현당이 있다네. 나라에 경사가 있어 왕세자가 정해졌다네. 이제 중요한 것을 살펴보니, 바른 기운을 기르는 것이 우선이라네. 그 방도는 무엇인가? 선행을 지키면서 노력하는 것이라네.

53 『英祖實錄』 권23, 영조 5년(1729), 8월 18일, 庚申, 2번째 기사.

54 『英祖實錄』 권51, 영조 16년(1740), 1월 10일, 壬子, 2번째 기사.

55 김백철, 앞의 책(2010), p. 25; 정만조, 『英祖代 中半의 政局과 蕩平策의 再定立』, 『역사학보』 111(1986), pp. 108-109.

56 『英祖實錄』 권41, 영조 12년(1736) 3월 15일, 己酉, 1번째 기사.



도 7. 사도세자의 학습내용, 『열성조계강책자차제』, 1886년, 접은 면 36.2×23.3cm,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K2-2781)

습관이 천성과 함께 이루어짐은 이치상 본래 자연적인 것이라네. 바른 기운을 보호하고 길러야 아름다운 자질이 온전하게 된다네 … 날마다 열심히 노력하고 밤낮으로 공부하여 세자가 덕을 키운다면 나라가 영원히 오래갈 것이라네<sup>57</sup>

사도세자는 3살이 되던 1737년(영조 13) 4월부터 학문을 배우기 시작했다. 영조는 『춘추』를 진강하는 자리에 세자를 입시시키기도 하였으며<sup>58</sup>, 7세가 되던 1741년(영조 17)에는 세자에게 『동몽선습』을 익히도록 했다(도 7). 이는 숙종이 세자였을 때 학습 전례를 따른 것으로, 영조가 숙종으로부터 물려받은 王統을 사도세자에게 전수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sup>59</sup>

사도세자는 경현당 선운에서 영조와 신하들 앞에서 『동몽선습』을 강했다. 세자가 무릎을 꿇은 채 배운 내용을 강하였는데, 영조는 “근래에는 배운 내용을 복습하지 않는 것 같다”거나 “노는데 빠져 있으니 예전에 공부한 것을 신경 쓰겠는가?”라며 세자의 학습 태도에 의문을 표하였다. 또한 책에서

57 “銘曰, 猗歟慶德, 日有景賢, 文獻之傍, 達孝之前, 靑丘有慶, 儲位定焉, 顧今所重, 養正爲先, 其道維何, 守善勉旃, 習與性成, 理固自然, 保之養之, 美資可全, 心身交泰, 自疆若川, 豈予臆論, 載在經篇, 曾孟左右, 宗師文宣, 日日孜孜, 夜對晝筵, 元良毓德, 邦國其綿.”

58 『承政院日記』 878책, 영조 14년(1738) 9월 12일, 辛酉, 16번째 기사.

59 윤정, 『英祖의 世孫 敎育과 王統 傳授』, 『역사와 실학』 58(2015), p. 163.



어려운 글자를 짚은 다음 읽도록 하였으며, 세자가 올바른 답을 말한 다음에야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외에도 영조는 세자의 용모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신하들에게 “세자의 또래 나이에 장대하기가 이와 같은 아이가 있는가?”라며 면박을 주자, 신하들이 “오랜 시간 무릎을 꿇고서도 용모와 행동이 단정하다”며 세자의 편을 들어주기도 하였다.<sup>60</sup> 영조는 세자를 나무라기는 했지만, 올바르게 성장해 숙종과 자신에 버금가는 성군이 되기를 바라며 군신 간의 ‘의리’를 가르치기도 하였다. 이렇듯 《경현당쟁재첩》에는 겉으로는 모질지만 아들의 장래를 걱정하는 아버지 영조의 모습을 잘 나타나 있다.

#### IV. 맺음말

《경현당쟁재첩》은 1741년 6월 22일 『춘추』 진강을 마친 영조가 경희궁 경현당에서 경연에 참여한 신하들에게 선운을 베풀고 쟁재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한 첩으로, 선운 장면을 그린 〈경현당석연도〉·선운의 경위와 내용·영조의 어제시와 신하들의 화답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첩은 선운에 참여한 신하들에게 사급되었는데 최소 13부 이상 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 국립중앙박물관과 서울역사박물관에 각각 1건씩 전하고 있다.

영조는 1737년부터 4년에 걸쳐 『춘추』를 진강하며 군신 간의 ‘의리’를 강조하여 국왕 중심의 정치 질서를 수립하고, 당습을 폐단을 지적하여 정국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였다. 또한 1741년 경덕궁으로 이어한 후 왕세자의 정당이자 18세기 이래 왕실의 주요 행사를 열던 경현당에서 선운을 베풀으로써, 임금의 위엄과 세자의 권위를 세자들에게 분명히 알리고자 하였다. 《경현당쟁재첩》은 18세기 중반 경연과 쟁재 문화, 신임옥사(1721~1722) 이후 주요 화제였던 ‘신임의리’에 대한 정국의 동향, 군신 간의 의리를 강조해 정통성을 강조하려 했던 국왕으로서 영조, 아들을 걱정한 아버지로서 영조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60 “世子更斂膝飭帶，高聲讀初大文一板半訖，玉音清亮，句讀分明。上曰，近來似不溫習舊讀，而能不忘矣 … 仍下教曰，弼善進前，東宮所讀處難解字，試拈問之 … 上曰，此兒年歲，亦有長大，如此者乎。尙星曰，間間寧或有之，邸下則長大豐盈，恰若十許歲矣。通洙曰，若是間間少兒，則其間不能耐久跪坐矣。”

## 참고문헌

### 【1차 문헌】

『國朝五禮儀』

『經國大典』

『宮闕志』

《景賢堂廣載帖》(국립중앙박물관, LKH 3783)

《景賢堂御製御筆和載帖》(서울역사박물관, 서702)

『末子大全』

『承政院日記』

『列聖朝繼講冊子次第』(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2781)

『銀臺條例』

『朝鮮王朝實錄』(『仁祖實錄』, 『肅宗實錄』, 『景宗修正實錄』, 『英祖實錄』)

### 【단행본 · 도록】

『김홍도와 궁중화가』, 서울: 호암미술관, 1999.

『어느 수집가의 초대』,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22.

『조선시대 기록화 채색안료』,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2009.

김백철, 『조선후기 영조의 탕평정치』, 파주: 태학사, 2010.

김현영, 『문안편지 한 장으로 족합니다』, 서울: 역사비평사, 2022.

박정혜,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 서울: 일지사, 2000.

\_\_\_\_\_, 『영조 대의 잔치 그림』,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안태욱, 『궁중연향도의 탄생』, 서울: 민속원, 2014.

정재훈, 『영조의 독서와 학문』,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5.

### 【논문】

윤정, 「재위 전반기(1725~1746) 英祖의 군신관계 이해: '君臣分義論'의 적용과 지향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29, 2007.

\_\_\_\_\_, 「英祖의 世孫 교육과 王統 전수」, 『역사와 실학』 58, 2015.

이종목, 「조선시대 어제시의 창작 양상과 그 의미」, 『장서각』 19, 2008.

이현서, 「英祖代 賜宴圖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정만조, 「英祖代 中半의 政局과 蕩平策의 再定立」, 『역사학보』 111, 1986.

홍순민, 「朝鮮王朝 宮闕 經營과 “兩闕體制”의 變遷」,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 부록

### 부록 1. <어제시에 대한 신하들의 화답시>

연번	관직	성명	화답시의 내용
1	승정원 도승지	權禎 (1675~1755)	寧考何年訖講工 通迫心法一編中 羹墻聖慕春秋義 三復宸章激寸衷 선왕(숙종)은 어느 해에 공부를 마쳤는가 심법을 두루 따라간다네 선왕을 추모하는 성상의 마음은 춘추대의이니 내리신 글을 반복해서 읽으니 마음이 격동한다네
2	승정원 좌승지	金尙星 (1703~1735)	湯盤千載日新工 都在麟經一部中 尊主花民貽燕義 寧王志事感宸衷 나날이 공부해야 새로워진다는 탕 임금의 대야 영원한데 모두 「춘추」에 들어가 있다네 임금을 존중하고 백성을 보호하며 후손에게 계책을 남긴다는 의리 선왕의 의지를 섬긴 우리 성상의 충성에 감동한다네
3	승정원 우승지	李道謙 (1677~?)	盛暑開筵不輟工 王春大義度龍中 遵先此日羹墻慕 法殿重臨感聖衷 무더운 더위에 경연을 열어 공부를 중단하지 않고 넓은 궁궐에서 춘추대의를 펼쳤다네 선왕을 따르면서 오늘 사모하는 마음을 펼치며 궁궐의 정전에 다시 왕립하신 성상의 충성에 감동하네
4	승정원 좌부승지	吳逢采 (1692~1759)	春秋一部法筵工 討論猶勤夏月中 訖講日符前後聖 雙擎宸藻激微衷 「춘추」를 법강에서 공부하시고 토론하면서 한여름에도 한결같이 노력하였다네 선왕과 성상의 공부를 마친 날이 딱 들어맞아 성상께서 남긴 글을 두 손으로 받드니 충성심이 솟구치네
5	승정원 우부승지	閔通洙 (1696~1742)	法講三庚不輟工 尊周餘義一編中 遺經更寓羹墻慕 節序重回激聖衷 한여름에 경연을 열어 공부를 그치지 않고 춘추대이가 「춘추」 속에 들어있다네 경전 속에 선왕을 사모하는 마음을 실어 두니 계절이 다시 돌아오자 전하의 충성심이 격동한다네
6	승정원 동부승지	朴師昌 (1687~1741)	震日開筵仰聖工 麟經義志淵深中 貽謀繼志淳淳意 天譴聆來激寸衷 이들간 경연을 열어 전하의 공부를 우러러보고 「춘추」 대의를 밝히고 토론하였다네 선왕이 남긴 계책과 뜻을 순순히 계승하여 전하가 하신 말씀을 들으니 충성심이 솟구친다
7	홍문관 교리	申思建 (1692~?)	勤講延英仰睿工 經帷猶設伏炎中 春秋一部傳家法 三紀才廻感聖衷 연영전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세자를 보았는데 삼복 더위에도 여전히 경연을 열었다 「춘추」 1책 내용은 나라에 전해지는 법도라서 숙종 경연에서 30년이 지났지만 전하의 마음에 감동하네
8	홍문관 부교리	南泰齊 (1699~1776)	麟經講訖詔群工 聖念追懷卅載中 濡首小臣無寸效 微忱惟欲勉和衷 「춘추」 공부 끝나자 여러 뛰어난 신하를 불러 전하께서 30년 전의 일을 회상하신다 하사한 술을 마신 신하들은 조금도 보답을 못하여 미약한 정성을 바치고자 한다네
9	홍문관 수찬	曹命敬 (1699~?)	聖學孜孜實下工 六經諸史貫通中 丁寧勉戒銘愚悃 繼述宏謨仰睿衷 성인의 학문을 부지런히 공부하여 육경과 사서를 관통하는 중이라네 전하께서 간절히 하신 말씀 마음에 새겨 나라 위한 계책을 계승하여 세자를 우러러본다네
10	홍문관 부수찬	李命坤 (1701~1758)	一部遺經已了工 盛炎不憚度龍中 傳家自有尊周意 時序相符感聖衷 전해오는 한 책 「춘추」 공부를 이미 마치 무더위 경연도 꺼리지 않는다네 나라에 전해지는 춘추대이가 있으니 시간이 서로 부합하여 전하의 마음에 감동한다네
11	승정원 가주서	尹光績 (1706~1768)	炎天初訖龍工 繼述心存一部中 紫薇光觀前星彩 燕翼綸音倍激衷 무더위에 처음으로 경연의 공부를 마치고 마음을 둔 한 부 「좌전」을 계승하였다네 군주의 별빛이 태자별의 광채와 가까이 있고 후손을 도우라는 전하 말씀에 갑절이나 마음이 격동된다



연번	관직	성명	화답시의 내용	
12	춘추관 검춘추	姜鳳休 (1690~?)	麟經講訖飭群工 際會風雲在此中 況侍東宮宣御酒 御恩不覺感愚衷	『춘추』 공부를 마치고 여러 신하에게 훈계를 하니 성군과 현신이 바로 여기 경현당에 있다네 계다가 세자를 모시니 술을 내려 주시어 내리신 은혜에 나도 모르게 마음으로 감동하였다네
13	춘추관 검춘추	全命璧 (1694~?)	講訖麟經聳百工 前星耀彩一筵中 先朝舊志今追述 如紆王言感寸衷	『춘추』 강독을 마치고 여러 신하를 격려하니 세자의 광채가 경연 모임 속에 빛난다 선왕의 옛 포부 지금에 다시 따라가니 맑은 बात 같은 전하의 말씀에 마음이 감동된다

## 부록 2. <승정원, 홍문관 관원들의 갱재시>

연번	관직	성명	갱진시의 내용	
1	승정원 도승지	權禎 (1675~1755)	鬱蔥佳氣繞銅龍 聖后親臨貳極從 政喜离筵連黼座 仍宣法醴溢銀鍾 謨深燕翼心精一 義好義經體朝宗 天語更詢簪履舊 三朝盛際幸生逢	성대하고 맑은 기운이 궁궐을 휘감는데 성상께서 친히 왕립하시고 세자도 뒤따랐다 세자 자리가 전하 앉은 자리와 이어져 참으로 기쁘고 이어서 술을 하사하니 은 술잔에 술이 넘실거린다 후손을 편안히 하는 깊은 계책은 마음을 정일하게 함이니 『춘추』의 뜻을 밝혀 조종을 본받으리라 전하께서 옛 신하들에 다시 물으시니 이전 시대 세분 임금의 성대한 모임을 다행히 만났다
2	승정원 좌승지	金尙星 (1703~1735)	咫尺离光觀袞龍 紅雲多處侍臣從 奎章色映黃金榜 法酒香濃白玉鍾 萬世洪圖基輔養 千秋大義仰朝宗 小臣亦忝經筵舊 歸與朋僚詎際逢	세자와 전하의 자리가 지척에 있고 붉은 구름 많은 곳에 승정원 신하들 따라 다니네 규장각에는 과거 급제자 명단이 어른거리고 하사한 술은 백옥 술잔에 향기가 가득하다 만세의 큰 계획은 세자를 가르치는 데 바탕을 두고 천추의 대의는 조종을 우리러보는 것이라네 나 또한 경연에 참석한 지 오래되어 돌아올 때는 동료와 함께 성군을 만났다고 자랑했다네
3	승정원 우승지	李道謙 (1677~?)	晚移仙仗闕蒼龍 寶座離離鶴駕從 瑞氣葱蘢雲一朵 恩波激灑酒三鍾 謨建成建極貽東邸 義講尊王法孝宗 聖戒溫諄爭鑄肺 千年嘉會幸親逢	노년에 임금 행차에 따라오니 궁궐이 열리고 어전은 화목하고 세자가 따라 다닌다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하고 구름이 가득한데 은혜의 물결이 석 잔 술에 가득히 넘쳐 흐른다 계획이 완성되고 법도가 이루어지자 세자에게 남기고 춘추대의를 설명하며 효종을 본받으라고 하였네 전하 가르침이 자상하여 다투어서 마음에 새기고 천년만의 좋은 모임을 직접 만난 것을 다행으로 여겼네
4	승정원 좌부승지	吳逢采 (1692~1759)	別殿彤雲護六龍 天顏有喜聖儲從 香飄紅藕薰仙仗 榮溢黃封倒玉鍾 邦國基隆仰岐嶷 王春義述感朝宗 君恩醇醑追先遇 孤露重嗟盛事逢	경현당의 붉은 구름이 성상 수레 보호하고 전하 얼굴 기쁘고 세자가 따라 다니네 붉은 연꽃에 퍼지는 향기는 성상 모시는 의장대에 퍼지고 맛있는 술이 옥 술잔에 넘쳐흐르니 영광이라네 나라의 튼튼한 기초인 웅명한 세자를 바라보니 춘추대의를 서술하면서 조종에 감사한다 군주의 은혜에 취하고 깨어나 선대에 받은 은혜를 추억하니 외로운 나는 성대한 일을 만난 일을 거듭 감탄한다

연번	관직	성명	쟁진시의 내용	
5	승정원 우부승지	閔通洙 (1696~1742)	日表離輝儼鳳龍 講筵餘晷笏簪從 天恩洋溢樽俎 宸藻洪春叶律鍾 繩祖聖心尊魯史 教儲徽範遇唐宗 祇思佩服先臣訓 糜粉圖酬曠世逢	햇빛처럼 빛나는 세자는 궁궐에서 의젓하고 경연의 여가에는 여러 신하가 따라 다니네 성상 은혜는 술잔에 넘쳐 흐르고 성상의 글은 기세가 힘차 음률에 잘 어울리네 선조를 계승한 성상은 노나라 역사인 『춘추』를 존중하여 세자에게 모범을 가르친 것은 당 태종을 만난 듯하네 선신이 남긴 교훈을 삼가 가슴에 담아두어 몸이 가루가 되더라도 보답하고자 하니 세상 드문 만남이다
6	승정원 동부승지	朴師昌 (1687~1741)	重暉瑞彩近山龍 袍笏昂趨共影從 戶外祥雲隨寶座 樽前新渥奉華鍾 千年基緒瞻儲貳 一念尊懷慕朝宗 菲質幸叨諸彥後 堪誇盛際獲躬逢	거듭 빛나는 상서로운 모습이 어전에 가깝고 관복 차림에 홀을 진 신하는 모두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네 문밖의 상서로운 구름은 보좌로 흘러가고 술통에는 성상의 은혜가 가득하고 아름다운 술잔을 올리네 천년의 기틀이 될 세자를 바라보고 한결같이 존왕양이를 생각하며 조종을 사모하네 못난 자질의 내가 다행히도 인재들 말석을 차지하니 태평성대에 몸소 이런 모임을 만났다고 자랑할 수 있다네
7	홍문관 교리	申思建 (1692~?)	周旋經綏群龍 黼座欣瞻鶴駕從 御氣葱籠香縹席 恩波激灑酒添鍾 心傳堯舜危微際 學貫春秋義理宗 咫尺花輶承聖誨 小臣千一幸遭逢	경연에 참여하여 인재들에 끼어들고 어전을 바라보니 세자가 따라 다니네 성상의 기상 가득한 향기가 자리에 퍼지고 은혜로운 물결이 술잔에 가득 넘쳐 흐르네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은미하다는 요순의 심법을 전하고 학문은 춘추 의리를 으뜸으로 삼고 일이관지하였다네 꽃무늬 벽돌이 깔린 궁전에서 성상의 가르침을 받으니 내가 전에 하나로 좋은 시대를 만난 것이 행운이라네
8	홍문관 수찬	曹命敬 (1699~?)	紫極前星九五龍 邇臣榮遇亦雲從 宸章耀壁鸞回紙 法醞如春蠶乏鍾 帝錫本支綿百世 聖傳精一繼三宗 鋪張盛事應吾輩 千載昌期況罕逢	성상과 세자는 나라의 중흥을 이룰 신룡과 같고 근신의 영광된 조우는 역시 구름이 용을 따르는 것과 같네 주상의 문장이 벽과 아름다운 종이에서 빛나고 하사한 술은 막 익었는지 잔에 넘실거리는 듯하다 천제께서 하사한 뿌리와 가지는 오래오래 이어지고 성인이 전한 유정유일 심법이 삼종에 계승되었네 성대한 일을 널리 알리는 일은 웅당 신하들의 일이라 천년토록 이런 번창할 시기를 만나기가 어렵다네
9	홍문관 부수찬	李命坤 (1701~1758)	假日賢堂儼宸龍 東宮傍侍法臣從 聖工勤勵仍庚節 御醞薰濃下午鍾 寧考遠謨思繼述 春王大義愴朝宗 才慚黼黻叨鵷列 只口宸恩不世逢	한가한 날 경연당에 곤룡포를 입은 성상은 엄숙한데 세자는 옆에서 시종들과 법도 있는 신하는 따라 다닌다 성상께서 공부하라고 격려하여 삼복더위에도 계속되고 하사한 술은 한낮의 술잔에 향기롭게 흘렀다 숙종께서 남기신 계책을 이어갈 것을 생각하고 춘추대의를 펼치면서 조종을 슬퍼한다 어전에서 대신들의 행렬에 끼이게 된 것 부끄럽지만 세상에 드문 성상의 은혜를 만난 것에 감사한다

# A Study on the *Album for the Poetry-writing Gathering of King Yeongjo and Officials in Gyeonghyeondang Hall* from 1741

Heo Moonhaeng\*

King Yeongjo (r. 1724–1776), the twenty-first king of the Joseon Dynasty, lectured on *Chunqiu* (The Spring and Autumn Annals), one of the five core Neo-Confucian classics, during royal lectures from the tenth lunar month of 1737 (the 13th year of the reign of King Yeongjo) through the sixth lunar month of 1741 (the 17th year of the reign of King Yeongjo). He discussed state affairs drawing upon the contents of this volume. Moreover, he tried to boost the political authority of the king and stabilize the political situation by emphasizing the king-subject relationship based on Confucian propriety and principles as expressed in *The Spring and Autumn Annals*.

On the twenty-second day of the sixth lunar month of 1741, King Yeongjo bestowed liquor on officials to commemorate the completion of his lectures on *The Spring and Autumn Annals* in Gyeonghyeondang Hall at Gyeongdeokkung Palace (present-day Gyeonghuigung Palace). Gyeonghyeondang Hall was originally used as a space for a crown prince to discuss state affairs. When official events began to be held there from the early eighteenth century, however, it turned into a space symbolizing the dignity of a king. King Yeongjo's bestowal of liquor at Gyeonghyeondang Hall reflected his goal of making clear to officials that the authority of the crown prince who would succeed the throne was built upon the dignity of the king.

*Album for the Poetry-writing Gathering of King Yeongjo and Officials in Gyeonghyeondang Hall* was produced to commemorate King Yeongjo's bestowal of liquor upon his subjects at Gyeonghyeondang Hall. It contains a painting depicting a banquet held by the king to bestow liquor upon officials at Gyeonghyeondang Hall, the text regarding the circumstances of the king's bestowal of liquor, a poem composed by King Yeongjo, and response poems by the officials.

---

\* Ph.D. Candidate Major in History of Korea at The Graduate School of Korean Studies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Copies of this album were given to the officials who participated in the event. Only two examples have survived, one housed in the collection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and one at the Seoul Museum of History. *Album for the Poetry-writing Gathering of King Yeongjo and Officials in Gyeonghyeondang Hall* allows us to explore royal lectures, the practice of composing poems in response to a king's poem, and the political situation marked by the strengthening of the king's legitimacy and the emphasis on the king-subject relationship built upon Confucian propriety and principles in the mid-eighteenth century. It also enables us to better understand King Yeongjo as a father concerned about his son Crown Prince Sado (1735–1762).

Keywords: Gyeonghyeondang Hall (Kyŏnghyŏndang Hall), *Album for the Poetry-writing Gathering of King Yeongjo and Officials in Gyeonghyeondang Hall* (*Album for the Poetry-writing Gathering of King Yŏngjo and Officials in Kyŏnghyŏndang Hall*), Gyeonghuigung Palace (Kyŏnghŭigung Palace), Crown Prince Sado, King Yeongjo (King Yŏngjo), Confucian propriety and principles, *Chunqiu* (The Spring and Autumn Annals)